

혁명국어 2008 - 2016 (9개년) 지방직 9급 유형별 기출 빈도표

		출 제 유 형	총	16	15	14	13	12	11	10	09	08
문 법	01	언어와 국어				1	1		2		1	1
	02	음운현상과 표준발음				1	2		1			1
	03	이론 문법		2	2	2		1	3			
	04	한글 맞춤법/ 표준어		1	1	1	2	3	1	2	2	5
	05	로마자 표기법/외래어 표기법				1	1	2		2		1
	06	띄어쓰기/문장부호		1	1				2			1
	07	올바른 문장/ 순화어		1	3	1	1	3		1	1	
어 휘	08	사전적 의미(고유어)			1		1			1	1	1
	09	사전적 의미(한자어)		2	1		2	1	3	1	2	2
	10	문맥적 의미/어휘간의 관계/어휘의 변화				1		1	3	1		
	11	관용어/ 속담/ 고사성어		2	3	2	1	2	2	3	1	1
	12	호칭어와 지칭어/ 높임법과 높임말					2					1
독 비 문 학 문 해	13	내용전개방식(진술방식,논리적 전개방식)			1	1	1		1	2	1	
	14	글의 구조적 전개(문장구조/단락구조)			1	1		3	1	1	4	
	15	추론방식과 오류										
	16	비문학의 독해		5	2	5	1	3		4	4	3
	17	쓰기/ 말하기		3		2		1		1	1	
	18	표현방식									1	1
	19	운문				1	1		1	1	1	1
20	산문		3	4		4					1	

‘덜밥’은 ‘용언의 관형형 + 명사’의 구조로 된 연결어미가 생략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반면 ①, ③, ④는 ‘부사+ 명사’의 구조로 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혁명국어 1000제의 힘 1회

8. 단어의 조어법이 다른 하나는?

① 참벗 ② 개살구 ③ 젊은이 ④ 넘어뜨리다

③

‘젊(은)+이’의 통사적 합성어이고, 나머지는 파생어이다.

문2. 맞춤법에 맞는 것은?

2016 지방직 9급

- ① 희생을 치뤄야 대가를 얻을 수 있다.
- ② 내로라하는 선수들이 뒤쳐진 이유가 있겠지.
- ③ 방과 후 삼촌 댁에 들른 후 저녁에 갈 거여요.
- ④ 가스 밸브를 안 잠궈 화를 입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③

‘지나는 길에 잠깐 들어가 머무르다’라는 의미의 ‘들르다’는 관형형 어미 ‘은과 결합하여 ‘들른’이 된다. 또한 ‘-에요’는 ‘해요’할 자리에 쓰며, 설명·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고, ‘-어요’는 해요할 자리에 쓰여, 설명·의문·명령·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인데,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할 경우 받침이 있는 체언 아래에서는 ‘-에요/-어요’로 축약이 불가능한 반면, 받침이 없는 체언 아래에서는 ‘-에요/-어요’로 축약이 가능하다. 그런데 ‘거’는 의존명사 ‘것’을 구어적으로 이르는 말로 ‘거+이+에요/어요’의 형태는 ‘거예요/거여요’로 축약 가능하다. 또한 ‘-어요’는 어미 ‘-어’와 보조사 ‘요’가 결합한 말이다.

(오답 피하기)

① 치뤄야 → 치러야

‘무슨 일을 겪어 내다’의 의미의 동사는 ‘치르다’로 ‘— 규칙 활용’을 한다.

또한 ‘대가(代價)’는 한자어끼리의 결합이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② 뒤쳐진 → 뒤쳐진

‘어떤 수준이나 대열에 들지 못하고 뒤로 처지거나 남게 되다’라는 의미는 ‘뒤쳐지다’이고, ‘뒤쳐지다’는 ‘물건이 뒤집혀서 찢혀지다’라는 의미이다. 또한 ‘내로라하다’는 ‘어떤 분야를 대표할 만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이다.

④ 잠궈 → 잠가

‘물, 가스 따위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차단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잠그다’는 ‘— 규칙 활용’을 한다.

유사 적중 문제

혁명국어 1000제의 힘 38회

9. 밑줄 친 단어 중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늦지 않고 뵈 수 있어서 다행이다.
- ② 선생님이 그리로 다니지 말라고 하셨잖아
- ③ 일단 한발 딛은 상태에서는 적극적으로어야 해.
- ④ 음식을 먹었으면 당연히 그 값을 치러야지.

③

④ ‘주어야 할 돈을 내주다, 무슨 일을 겪어 내다, 아침, 점심 따위를 먹다.’ 등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는 ‘치르다’이다. ‘치르다’를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를 붙여 사용할 때, 흔히 ‘치루었다’나 ‘치렀다’로 쓰는 경우가 허다하나 이 말은 ‘치르다’가 기본형이다. 따라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붙는 경우, ‘치렀다’가 올바른 표현이다.

혁명국어 1000제의 힘 7회

10. 다음 중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이 차량은 안내원이 없으므로 승객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우리 민족도 다른 민족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인구를 일억까지 늘여야 한다.
- ③ 3학년 선배가 저희더러 선생님을 모셔 오라고 해서 제가 대표로 찾아뵈었습니다.
- ④ 우리 가게에는 바늘, 낚싯줄, 낚싯대 등 모든 낚시 용품과 친절한 안내원이 대기하고 있다.

③

②의 ‘뒤처지지, 늘여야’를 각각 ‘뒤쳐지지(뒤지지), 늘려야’로 바꾸어야 한다.

뒤쳐지다: 물건이 뒤집혀서 젓혀지다

뒤처지다: 어떤 수준이나 대열에 들지 못하고 뒤로 처지거나 남게 되다.

뒤지다(뒤:지다): 걸음이 남에게 뒤떨어지다, 능력, 수준 따위가 남보다 뒤떨어지거나 못하다.

혁명국어 1000제의 힘 32회

4.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것은?

- ① 내가 갈까 하는데 그 사람은 그걸 모를걸?
- ② 아니, 오늘따라 선생님께서 왜 그러신대?
- ③ 아니요, 이것은 책이 아니요, 마음의 양식이예요.
- ④ 지난번에 만나 이야기해 보니 참 사람이 성실하대.

④

③ 부정의 대답인 ‘아니’ 뒤의 ‘요’는 존칭 보조사이고, 형용사 ‘아니다’의 ‘요’는 연결어미이다. 그리고 친근하게 말하는 종결어미 ‘이예요, 이어요’는 받침 있는 체언 뒤에서는 ‘예요, 여요’로 축약되지 않는다.

혁명국어 1000제의 힘 4회

2. 다음 중 맞춤법이 잘못된 것은?

- ① 교실 문은 항상 잘 잠가야 한다.
- ② 갑자기 웅성대며 지꺼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 ③ 이번에 새로 지은 건물의 안팎을 둘러보았다.

④ 어찌나 미안하던지 멋쩍게 머리를 긁적이고 서 있었다.

②

① '잠가야'는 동사 '잠그다'의 어간에 어미 '-아야'가 결합된 것으로, 이 경우에 '잠그다'는 'ㄱ' 규칙 용언으로 활용할 때에는 '으'가 탈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잠궤야'가 아니라 '잠가야'가 맞는 표기가 된다.

문3.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

2016 지방직 9급

- ① 지금으로부터 십여 년 전에 작은 소요가 있었다.
- ② 우리는 모임에서 정한대로 일정을 짤 수밖에 없다.
- ③ 수정 요청시 연관된 항목을 재조정 하여야 할 것이다.
- ④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뿐 아니라 추진력 마저 없는 사람이다.

①

조사끼리는 붙여 쓰므로 '지금+으로+부터'는 모두 붙여 쓰고, '그 수를 넘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여(餘)'는 앞말과 붙여 쓴다.

(오답 피하기)

- ② 정한대로 → 정한 대로
- ③ 수정 요청시 → 수정 요청 시
재조정 하여야 → 재조정하여야
- ④ 추진력 마저 → 추진력마저

유사 적중 문제

혁명국어 1000제의 힘 48회

1. 밑줄 친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 일은 절차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 ② 두 친구는 십 여 년 만에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 ③ 아마 내일쯤은 영수가 도착할걸.
- ④ 그는 한 시간가량 앉아 있다가 돌아갔다.

②

→ 십여 년 만

'-여(餘)'는 '그 수를 넘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문4. 다음 글을 고쳐 쓰기 위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 지방직 9급

창의적 사고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 돌파하는 데서 출발한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이론과 법칙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자신만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일이 중요하다. ㉡ 그러나 이러한 창의적 사고가 단순히 개인의 독특함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창의적 사고가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적절한 교육을 통해 ㉢ 길러진다. 따라서 ㉣ 자신의 창의성을 계발하기 위해 주변의 사물을 비판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 ① ㉠ : 단어의 쓰임이 어색하므로 ‘탈피하는’으로 고친다.
- ② ㉡ :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잇지 못하므로 ‘또한’으로 고친다.
- ③ ㉢ : 주술 호응이 되지 않으므로 ‘길러진다는 점이다’로 고친다.
- ④ ㉣ : 주장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환경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고친다.

②
 앞문장의 내용이 창의적 사고에 있어서의 독창적 아이디어의 중요성이고, 뒤 문장의 내용은 창의적 사고가 단순한 개인의 독특함만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그 위에 더. 또는 거기에다 더’를 의미하는 접속 부사 ‘또한’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그대로 두거나 ‘그런데’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발전적으로 벗어나는 의미의 단어가 필요하므로 ‘쳐서 깨뜨려 뚫고 나아가다, 또는 일정한 기준이나 기록 따위를 지나서 넘어서다’라는 의미의 ‘돌파(突破)하다’를 ‘일정한 상태나 처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다’라는 의미의 ‘탈피(脫皮)하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③ 주어가 ‘더욱 중요한 것은’이므로 ‘길러진다는 점이다’로 수정해야 한다.
- ④ 전체의 주제가 ‘창의적 사고는 개인의 독특함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환경과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길러진다’이므로 ‘창의성 개발의 중요성’이 아닌 ‘환경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유사 적중 문제

혁명국어 1000제의 힘 31회

12. 다음은 어떤 글의 초고이다. 고쳐 쓰기를 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류 사회가 지향해 온 역사의 길은 사람들이 살기에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길이었으며 그것은 일정하게 이루어져 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류의 역사는 인간들이 정치적 속박에서 점점 벗어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지는 인간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해 온 것이다. 인간이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길은 ㉡ 스스로 권력을 가져야 하며,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인간이 많아지는 것은 민주주의가 ㉢ 확립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간의 역사는 경제적으로 빈부의 차가 적어지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고대나 중세는

생각은 큰 그릇이고 말은 생각 속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이어서 생각에는 말 외에도 다른 것이 더 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이 말보다 범위가 넓고 큰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말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그 생각의 위대함이나 오묘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생각이 형님이요, 말이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생각은 동생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 ① ‘사과’는 언제부터 ‘사과’라고 부르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어.
- ② 동일한 사물을 두고 영국에서는 [tri:], 한국에서는 [namu]라 표현해.
- ③ 이 소설은 정말 감동적이야. 내가 받은 감동은 말로는 설명이 안 돼.
- ④ 시간의 흐름을 초, 분,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해 온 것은 인간의 사회적 약속이야.

③

밑줄 친 부분의 요지는 ‘생각은 말 외에도 다른 것이 더 있다’, 즉 ‘말’보다 ‘생각’의 ‘범위가 더 크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받은 감동’이라는 ‘생각’을 ‘말’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한 ③의 예가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어휘’의 어원을 알 수 없다는 것으로 언어의 자의성에 대한 설명이다.
- ② 각 나라의 언어가 다른 이음동의어의 예로 언어의 자의성에 대한 설명이다.
- ④ 연속되어 있는 대상을 끊어서 표현하는 언어의 분절성과 사회적 약속을 중시한 언어의 사회성에 대한 설명이다.

유사 적중 문제

혁명국어 1000제의 힘 2회

10. ㉠의 사례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대화라고 불리는 사회의 구조 변화가 충분히 진행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당한 부분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아직도 많이 보존된 상태에서 외래적인 행위 양식도 적지 않게 도입된다. 이와 같은 중간적인 단계에서의 문화는 일종의 혼합 문화(混合文化)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단계의 문화적 특징은 생활양식과 가치관 등에서 계층 간, 세대 간,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심하고, 소위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적인 혼재(混在)**가 일어나는 상황이다.

- ① 먼 곳에 갈 때에 기차를 타기도 하고, 버스를 타기도 한다.
- ② 아내의 아버지를 장인어른으로 부르기도 하고, 빙장어른으로 부르기도 한다.
- ③ 전화로 통화하기도 하고, 컴퓨터 통신의 대화방을 이용하기도 한다.
- ④ 셈할 때는 주판을 이용하기도 하고, 전자계산기를 이용하기도 한다.

④

㉠은 시대가 다른 두 문화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④는 전통 사회의 생활양식과 수용된 선진 사회의 생활양식이 혼재하고 있는 것이다.

문7. '셋강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 토의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 지방직 9급

토의는 어떤 공통된 문제에 대해 최선의 해결안을 얻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의논하는 말하기 양식이다. 패널 토의, 심포지엄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 **패널 토의**는 3 ~ 6인의 전문가들이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일반 청중 앞에서 토의 문제에 대한 정보나 지식, 의견이나 견해 등을 자유롭게 주고받는 유형이다. 토의가 끝난 뒤에는 청중의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해 토의자들이 답변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청중들은 관련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되고 점진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 **심포지엄**은 전문가가 참여한다는 점, 청중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패널 토의와 그 형식이 비슷하다. 다만 전문가가 토의 문제의 하위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연설이나 강연의 형식으로 10분 정도 발표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 ① ㉠과 ㉡은 모두 '셋강 살리기'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 ② ㉠과 ㉡은 모두 '셋강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 최선의 해결책을 얻기 위함이 목적이다.
- ③ ㉡은 토의자가 셋강의 생태적 특성, 셋강 살리기의 경제적 효과 등의 하위 주제를 발표한다.
- ④ ㉠은 '셋강 살리기'에 대해 찬반 입장을 나누어 이야기한 후 절차에 따라 청중이 참여한다.

④
 '토론'이란 '어떠한 문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가진 참여자가 긍정과 부정에 대한 각각의 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내세우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화법'을 말하고, '토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하는 화법'의 유형으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찬반 입장을 나누어' 이야기한다고 한 ④의 설명은 '토의'가 아닌 '토론'에 대한 설명이다.

유사 적중 문제

혁명국어 1000제의 힘 7회

18. 다음 글의 빈칸에 알맞은 말은?

()은 토의의 한 형태로 '공공의 장소에서 공공의 문제에 대해 공개 토의하는 것'이며 처음부터 청중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 ① 포럼(forum)
- ② 심포지엄(symposium)
- ③ 원탁 토의
- ④ 배심 토의

①
 '포럼(forum)'은 공공의 장소에서 공공의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의 형태를 통해 청중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토의로 간략한 주제 발표만 있을 뿐 강의나 연설은 없으며 처음부터 청중이 참여하여 주도하며, 사회자의 역할이 가장 중시되는 것이 특징이다.

“왜 들어가는지 아시켜 드릴까요? 저 사람이, 곧잘, 다리 밑으로 들어가서, 게서, 거지들한테 돈을 십전이구 이십전이구, 얻어 갖거든요. 그래 그걸루 술두 사 먹구, 밥두 사 먹구 허는데, 그게 거지들이 동냥해 들인 거니, 이십전이구, 삼십전이구 간에, 모두 동전한 썩 짜릴 거 아녜요? 근데 저 사람이 동전 가지군 절대 술집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 은제든지 꼭 가게루 가서 그걸 모두 십전짜리루 바꿔 달래서 ……”

- 박태원, 「천변풍경」 중에서 -

- ① 두 사람의 관심사가 달라서 대화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 ② 한 사람이 대화를 주도하면서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있다.
- ③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는 가운데 현실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있다.
- ④ 서로 간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면서 절충점을 찾아내고 있다.

②
 소년은 평소에 가게 안에서 관찰하던 천변 풍경을 통해 대상에게 ‘땅꾼’인 둘째 대장의 사소한 비밀을 말해 주고 있다. 이로 보아 소년이 대화를 주도하며 상대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문10.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 지방직 9급

어느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그 학교에서 강의를 재미없게 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한 인류학 교수의 수업을 대상으로 실험을 계획했다. 그 심리학 교수는 인류학 교수에게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그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만 사전에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전달했다. 첫째, 그 교수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열심히 들을 것. 둘째, 얼굴에는 약간 미소를 띠면서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간혹 질문도 하면서 강의가 매우 재미있다는 반응을 겉으로 나타내며 들을 것.

한 학기 동안 계속된 이 실험의 결과는 흥미로웠다. 우선 재미없게 강의하던 그 인류학 교수는 줄줄 읽어 나가던 강의 노트에서 드디어 눈을 떴고 학생들과 시선을 마주치기 시작했다. 가끔씩은 한두 마디 유머 섞인 농담을 던지기도 하더니, 그 학기가 끝날 즈음엔 가장 열의 있게 강의하는 교수로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학생들의 변화였다. 처음에는 실험 차원에서 열심히 듣는 척하던 학생들이 이 과정을 통해 정말로 강의에 흥미롭게 참여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소수이긴 하지만 아예 전공을 인류학으로 바꾸기로 결심한 학생들도 나오게 되었다.

- ① 학생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
- ② 교수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
- ③ 언어적 메시지의 중요성
- ④ 공감하는 듣기의 중요성

④
 강의를 재미없게 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교수가 강의를 잘하는 교수로 변모하는 과정과, 실험인 것을 알면서도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강의에 참여하게 된 과정의 원인은 심리학 교수가 제시한 ‘주의를 집중하면서 들을 것. 미소를 띠면서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간혹 질문도 하면서 강의가 매우 재미있다는 반응을 겉으로 나타내며 들을 것’이라는 공감하며 듣기에 있다.

문11. 다음에 제시된 의미와 가장 가까운 속담은?

2016 지방직 9급

가난한 사람이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기 싫어서 허세를 부리려는 심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① 가난한 집 신주 굶듯
- ② 가난한 집에 자식이 많다
- ③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
- ④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③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

- ① 당장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넉넉지 못한 가난한 살림일수록 기와집을 짓는다는 뜻으로,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기 싫어서 허세를 부리려는 심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② 가난하다고 주저앉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잘살아 보려고 용단을 내어 큰일을 벌인다는 말.

(오답 피하기)

① 가난한 집 신주 굶듯

가난한 집에서는 산 사람도 배를 굶는 형편이므로 신주까지도 제사 음식을 제대로 받아 보지 못하게 된다는 뜻으로, 줄곧 굶기만 한다는 말.

② 가난한 집에 자식이 많다

가난한 집에는 먹고 살아 나갈 걱정이 큰데 자식까지 많다는 뜻으로, 이래저래 부담되는 것이 많음을 이르는 말.

④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살아가기도 어려운 가난한 집에 제삿날이 자꾸 돌아와서 그것을 치르느라 매우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으로, 힘든 일이 자주 닥쳐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문12. 밑줄 친 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 지방직 9급

- ① 이 숲에서 자생하던 희귀 식물들의 개체 수가 줄었다.
- ②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서 이것저것 따질 개재가 아니다.
- ③ 이번 아이디어 상품의 출시 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된다.
- ④ 현대 사회에서는 요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보가 넘쳐 난다.

②

개재 → 계제

‘계제’(階梯)란 ‘사다리’라는 뜻으로, 일이 되어 가는 순서나 절차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된 형편이나 기회’의 의미로 제시문에서는 두 번째 의미로 쓰인다. ‘개재(介在)란 ‘어떤 것들 사이에 끼여 있음’의 의미로 ‘끼어들’, ‘끼여 있음’으로 순화된 말로 ‘공적인 일에 사적인 감정이 개재되어서는 안 된다.’ 등으로 쓰이는 말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식물의 경우에는 ‘자생(自生)’을, 동물의 경우에는 ‘서식(棲息)’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 ③ ‘성패(成敗)란 ‘성공과 실패’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고, ‘승패(勝敗)란 ‘승리와 패배’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 ④ ‘유례’(類例)란 ‘같거나 비슷한 예’를 의미하며, ‘유래(由來)란 ‘사물이나 일이 생겨남. 또는 그 사물이나 일이 생겨난 바’를 의미하는 말이다.

유사 적중 문제

혁명국어 1000제의 힘 21회

5. 다음 중 올바른 문장은?

- ① 강원도 고지대에 자생하고 있는 반달곰을 발견했다.
- ② 얼마나 술이 취했던지 어젯밤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
- ③ 모두들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우기며 타협하지 않았다.
- ④ 현재의 복지 정책은 앞으로 손질이 불가피한 전망입니다.

③

(오답 피하기)

① ‘자생하다’는 식물에 대하여 쓰는 것이고, 동물은 ‘서식하다’라고 한다.

혁명국어 1000제의 힘 18회

2. 다음 중 밑줄 친 어휘의 사용이 적절한 것은?

- ① 김 박사는 그 원리를 규명하는 데에 평생을 바쳤다.
- ② 전설 중에는 특정한 풍속의 유래를 설명하는 것이 많다.
- ③ 그 가게는 이웃 가게와 단합하여 물건값을 대폭 인상했다.
- ④ 은행 돈을 빌려 사무실을 임대하였다.

②

유래(由來): 사물이나 일이 생겨남. 또는 그 사물이나 일이 생겨난 바 (까닭, 연유)
 유례(類例): 같거나 비슷한 예 = 전례(前例) 예)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번

문13. 명사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2016 지방직 9급

- ① 타올에 관한 한 독보적인 기록도 깨졌다.
- ② 상자에 이런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 ③ 친구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항상 못되게 군다.
- ④ 저 모퉁이에서 얼굴이 하얀 이가 걸어오고 있다.

①

타올, 한, 독보적, 기록
(오답 피하기)

- ② 상자, 것 .
- ③ 친구, 외, 사람
- ④ 모퉁이, 얼굴, 이

유사 적중 문제

혁명국어 1000제의 힘 21회

17. 다음 중 관형사인 것은?

- ① 그는 무슨 일이든 진취적으로 해 나갔다.
- ②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다.
- ③ 그 나라 사람들은 매우 보수적이어서 여자는 반소매도 입을 수가 없다.
- ④ 가급적이면 빨리 가도록 해라.

②

‘주도적’이 명사 ‘역할’을 수식하므로, 관형사이다. 나머지는 조사와 결합했으므로 명사이다. 특히 접미사 ‘-적(的)’이 붙는 말은 품사를 구별하기가 애매한데, ‘-적(的)’이 붙는 말에 조사가 결합하면 명사이고, 직접 체언을 꾸미면 관형사이며, 부사나 용언을 꾸미면 부사이다.

문14. 밑줄 친 부분의 한자가 옳은 것은?

2016 지방직 9급

- ① 학술지의 규정(規正)에 따라 표절 논문을 반려하였다.
- ② 문법 구조(救助)를 잘 이해하면 독해력이 향상된다.
- ③ 각급 기관에서 협조할 사안이 충분(充分)히 있다.
- ④ 사회적 현상(懸賞)을 파악하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충분하다(充分 채울 충, 나눌 분):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다.

(오답 피하기)

- ① → 규정(規定 법 규, 정할 정): 규칙으로 정함. 또는 그 정하여 놓은 것.
규정(規正 법 규, 바를 정): 바로잡아서 고침.
- ② 구조(構造 엮을 구, 지을 조): 부분이나 요소가 어떤 전체를 짜 이룸. 또는 그렇게 이루어진 열개.
구조(救助 구원할 구, 도울 조): 재난 따위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 ④ → 현상(現象 나타날 현, 코끼리 상):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사물의 모양과 상태.
현상(懸賞 달 현, 상품 상):무엇을 모집하거나 구하거나 사람을 찾는 일 따위에 현금이나 물품 따위를 내걸. 또는 그 현금이나 물품.
현상(現狀 나타날 현, 형상 상): 나타나 보이는 현재의 상태.

문15. 밑줄 친 한자 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 지방직 9급

- ① 말이 너무 번드르르해 미덥지 않은 자들은 대부분 구밀복검형의 사람이다.
- ② 그는 싸움다운 전쟁도 못하고 일패도지가 되어 고향으로 달아나고 말았다.
- ③ 그에게 마땅히 대응했어야 했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수서양단하다가 시기를 놓쳤소?
- ④ 요새 신입생들이 선배들에게 예의를 차릴 줄 모르는 걸 보면 참 후생가외하다는 생각이다.

④

‘후생가외(後生可畏)’란 ‘젊은 후학들을 두려워할 만하다는 뜻’으로, 후진들이 선배들보다 젊고 기력이 좋아, 학문을 닦음에 따라 큰 인물이 될 수 있으므로 가히 두렵다는 긍정적 의미의 말로 ‘청출어람(靑出於藍)’과 유사한 의미이다.

(오답 피하기)

- ① 구밀복검(口蜜腹劍): 입에는 꿀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으로, 말로는 친한 듯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이 있음을 이르는 말.
- ② 일패도지(一敗塗地): 싸움에 한 번 패하여 간과 뇌가 땅바닥에 으깨어진다는 뜻으로, 여지없이 패하여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름을 이르는 말.
- ③ 수서양단(首鼠兩端): 구멍에서 머리를 내밀고 나갈까 말까 망설이는 쥐라는 뜻으로, 머뭇거리며 진퇴나 거취를 정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르는 말.

유사 적중 문제

혁명국어 1000제의 힘 27회

5. 한자 성어와 속담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간어제초(間於齊楚):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 ② 고식지계(姑息之計): 언 발에 오줌 누기
- ③ 구밀복검(口蜜腹劍): 배 주고 속 빌어먹는다
- ④ 숙호충비(宿虎衝鼻): 굶어 부스럼 만들기

유사 적중 문제

혁명국어 1000제의 힘 25회

16. 이 이야기에 나타난 '서울시 관계자'의 태도로 알맞은 것은?

교통질서를 깨뜨리는 차량은 많지만 단속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대수는 급격히 늘지만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인식이 판쳐 자동차 문화가 크게 비뚤어져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15일 '1백일 교통 대책'의 하나로 시민들 스스로 교통질서 계도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난 완화를 위한 신고엽서 30여 만 장을 제작해 오는 24일부터 시민들에게 나눠 주기로 했다.

수취인 부담으로 된 이 우편엽서에 시민들이 교통질서 위반 차량의 번호와 때, 곳 등을 간략하게 적어 우체통에 넣으면 서울시는 차적 조회로 위반 운전자의 주소를 알아내 '여유와 양보 정신을 갖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은 엽서를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보낸다.

이런 운동은 애초 지난해 교통부가 본부 직원들을 신고 요원으로 삼아 본보기로 해 본 결과 권고엽서를 받은 운전자의 90% 이상이 '자식들 보기가 부끄러워 앞으로는 법규를 지켜야겠다.'는 반응을 나타내는 등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은 차선 어김, 신호 어김, 난폭 운전, 앞지르기 어김, 버스 전용차선 침범 등이 모두 포함된다.

시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고엽서를 굳이 쓰지 않고 시청에 설치돼 있는 민원 수렴 전용전화로 제보하더라도 신고 내용이 구체적일 경우 마찬가지로 권고엽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사람의 위반 내용을 신고하다 보면 적어도 자신은 법규를 지키게 되는 등의 의식 전환이 기대된다."며 "시민운동으로 확산돼 자동차 문화가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① 행정 기관의 권위에 의존하고 있다.
- ② 법의 힘을 최대한 이용하여 규제하고 있다.
- ③ 가족 간의 체면을 자극하는 도덕심에 호소하고 있다.
- ④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보편적 양심에 호소하고 있다.

④
'여유와 양보 정신을 갖고 ~', '자식들 보기가 부끄러워 ~', '다른 사람의 위반 내용을 신고하다 보면 ~' 등의 내용으로 보아 강제성이 없는, 시민의 일반적 의식에 호소하고 있다.

문17.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 지방직 9급

영어에서 위기를 뜻하는 단어 'crisis'의 어원은 '분리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크리네인(Krinein)'이다. 크리네인은 본래 회복과 죽음의 분기점이 되는 병세의 변화를 가리키는 의학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서양인들은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침착하게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여 사리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동양에서는 위기(危機)를 '위험(危險)'과 '기회(機會)'가 합쳐진 것으로 해석하여,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려고 한다. 동양인들 또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위기가 기회로 변모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 ① 위기가 아예 다가오지 못하게 미리 대처해야 한다.
- ② 위기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 ③ 위기가 지나갔다고 해서 반드시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니다.
- ④ 욕심에서 비롯된 위기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봐야 한다.

②

위기에 대한 어원을 통해 필자의 주장을 찾는 문제이다. 영어의 어원 ‘crisis’를 통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중시하고, 사리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동양의 ‘위험(危險)’과 ‘기회(機會)’가 합쳐진 ‘위기(危機)’의 뜻 풀이를 통해 관점에 따라 위기가 기회로 변모될 수도 있다고 본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중심 내용은 위기에 대한 냉정한 판단과 긍정적 해결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 있다.

문18. 다음 글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 지방직 9급

금와는 그때 한 여자를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만났는데,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 하백의 딸 유화입니다. 동생들과 놀러 나왔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자신이 천제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며 웅신산 아래 압록강 가에 있는 집으로 유인하여 사통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간 것을 꾸짖어 이곳으로 귀양을 보내 살도록 했습니다.”

㉡ 금와가 괴이하게 여겨 유화를 방 안에 남몰래 가두어 두었더니, 햇빛이 비추었다. 그녀가 피하자 햇빛이 따라와 또 비추었다. 이로 인해 임신하여 알을 하나 낳았는데, 크기가 다섯 되쯤 되었다. …(중략)… 금와에게는 아들이 일곱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놀았다. 그러나 그들의 기예가 주몽에게 미치지 못하자 ㉢ 맡아들 대소가 말했다. “주몽은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니 일찍이 도모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왕은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기르도록 했다. 주몽은 준마를 알아보고 먹이를 조금씩 주어 마르게 하고, 늙고 병든 말은 잘 먹여 살찌게 했다. 왕은 살찐 말은 자기가 타고 주몽에게는 마른 말을 주었다. 왕의 아들들과 여러 신하들이 함께 주몽을 해치려 하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주몽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다. “나라 사람들이 너를 해치려고 하는데, 너의 재략이라면 어디 간들 살지 못하겠느냐? 빨리 떠나거라.”

그래서 주몽은 오이 등 세 사람과 벼를 삼아 떠나 개사수에 이르렀으나 건널 배가 없었다. ㉣ 추격하는 병사들이 문득 닥칠까 두려워서 이에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빌었다. “나는 천제의 손자이고, 하백의 외손이다. 황천후토(皇天后土)는 나를 불쌍히 여겨 급히 주교(舟橋)를 내려 주소서.” 하고 활로 물을 쳤다. 그러자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주어 강을 건너게 했다. 그러고는 다리를 풀어 버렸으므로 뒤쫓던 기병은 건너지 못했다.

- 작자 미상, 「주몽신화」 중에서 -

- ① ㉠ : ‘유화’가 귀양에 처해진 이유를 알 수 있다.
- ② ㉡ : ‘유화’가 임신을 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다.
- ③ ㉢ : ‘주몽’이 준마를 얻기 위해 ‘대소’와 모의했음을 알 수 있다.
- ④ ㉣ : ‘주몽’이 강을 건너가기 위해 ‘신’과 교통했음을 알 수 있다.

③

대소는 부왕인 금와에게 주몽을 배척하기를 바라고, 금와는 이를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대소'와 모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준마를 얻게 된 것은 말을 기른 후의 일이므로 역시 모의와는 관련이 없다.

문19. 밑줄 친 부분과 가장 유사한 속성을 지닌 현대인의 삶의 태도는? 2016 지방직 9급

근대 이후 인간들은 불안감과 고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중 하나가 복종을 전제로 하는 권위주의적 양태이다. 이는 개인적 자아의 독립을 포기하고 자기 이외의 어떤 존재에 종속되고자 하는 것으로, 사라진 제1차적 속박 대신에 새로운 제2차적 속박을 추구하는 양상을 띤다. 이것은 때로 상대방을 자신에게 복종시킴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만족을 얻으려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일견 대립적으로 보이는 이 두 형태는 불안감과 고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권위주의적 양상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이다.

- ① 소속된 집단의 이익이나 정의보다는 개인의 이익이나 행복만을 추구하는 태도
- ② 집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부모나 어른의 의견보다는 아이들의 요구를 먼저 고려하는 태도
- ③ 어떤 상황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가지기보다는 언론 매체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
- ④ 직업을 통해서 얻는 삶의 만족보다는 취미 활동을 통해서 얻는 삶의 즐거움을 더 중시하는 태도

③

제시문에는 밑줄 친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두 가지 형태의 경향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자기 이외의 어떤 존재에 종속되고자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상대를 자신에게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 모두가 '권위주의적 양상'이라 하였으므로 ③의 '자신의 견해를 가지기보다는 언론 매체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첫째 경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의 '개인의 이익이나 행복'을 추구하거나, ②의 '아이들의 요구를 먼저 고려하는 태도', ④의 '취미 활동을 통해서 얻는 삶의 즐거움'을 중시하는 태도는 '종속'이나 '복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위주의적 양상에 적절한 사례가 아니다.

어떤 사회적 현상을 설명할 때, 상징적 행동을 배제하게 되면 남는 것은 실용성과 관련된 설명뿐이다. 그러나 아메리카에서 시가가 유행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런 기능적 설명이 통하지 않는다. 가령, 사람들이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주장을 들어 보자. 일견 수긍되는 점이 있다. 사람들의 흡연 욕구가 여전히하다는 것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메리카 사회가 시가를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하고, 궤련을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하지 않은 까닭을 설명할 수가 없다.

궤련을 피우는 사람들은 이제 공공건물 앞의 보도에 한데 모여서 흡연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들 사이에 즉각적 연대감을 형성하면서 말이다. 그런 그들에게 더러 경멸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공공건물 밖에서 흡연을 하는 한, 남에게 해가 될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가를 피우는 사람들의 사정은 전혀 다르다. 그들은 저녁 식사가 끝날 즈음에, 또는 파티 도중에 전리품을 자랑하듯이 당당하게 시가를 꺼내어 입에 문다. 그들의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찌하여 이런 차별이 생긴 것일까? 연기를 삼키지 않기 때문에 시가가 몸에 덜 해롭다는, 일반적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연기를 들이마시지 않고 뱉어 내는 것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실내 공기를 더욱 심하게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건 당국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궤련과의 투쟁을 선포했다. 그러자 궤련은 죽음의 상징이 되었고, 그 캠페인은 상류층 사람들 사이에 즉각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아무도 궤련을 피우지 않지만, 싸구려 술집에는 여전히 궤련 연기가 자욱하다.

- ① 자문자답 형식을 사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② 난해한 용어의 정의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자신과 다른 견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④ 다른 현상과의 비교를 통해 특정 현상에 담긴 의미를 밝히려 한다.

②
 ‘어찌하여 이런 차별이 생긴 것일까?,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등의 자문자답의 전개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①), ‘가령, 사람들이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주장을 들어 보자. 일견 수긍되는 점이 있다.’, ‘연기를 삼키지 않기 때문에 시가가 몸에 덜 해롭다는, 일반적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등을 통해 자신과 다른 견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으며(③), 궤련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평가와 비교하여 시가를 피우는 특정 현상에 담긴 의미를 밝히려 한다(④).

유사 적중 문제

혁명국어 1000제의 힘 36회

11. 다음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생명공학의 발전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혜택으로 많은 사람들이 장기 생산을 꼽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 해 국내의 한 연구소는 앞으로 가장 유망한 미래 기술의 하나로 인공 장기 개발을 꼽았고, 정부에서도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 산업에 이 분야를 포함시켰다. 경제적 측면 이외에 인도적 차원에서든 매년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만 1만 명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인공 장기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최근 무균 돼지 실험을 비롯해서 이종 간 장기 이식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는 것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기반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을 이용해서 장기를 이식하는 것은 자동차의 부품을 바꾸어 끼우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거기에는 안전 · 윤리 · 사회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2월 20일 한 시민 단체에서 ‘돼지 장기 인간 이식,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핵심적인 논점을 중심으로 이종 간 장기 이식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사람과 다른 종의 장기를 이용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면역거부였다. 면역거부는 우리 몸의 기본적인 방어체계인 면역계가 이식된 장기를 침입자로 간주해서 공격하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하루 이내에 나타나는 초급성, 약 10일 이후에 나타나는 급성, 그리고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나타나는 만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돼지의 장기를 이용하는 경우 초급성 거부 반응을 극복하기 위해서 형질전환을 시켜서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두기도 했지만, 설령 초급성 면역거부 반응을 극복한다 해도 이후 급성 · 만성 등 첩첩 산중으로 다른 면역거부 반응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면역학자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면역 현상을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인 개체성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전자 한두 개를 제거한다고 해서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능인 면역기능을 극복할 수 없으며 ‘면역 현상은 고정된 시스템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균형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결국 유전자의 조작을 통해서 생명현상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면역거부 반응을 극복할 수 있다는 발상은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셈이다.

- ① 자신이 전개할 논지의 관점을 먼저 제시하고 있다.
- ② 용어에 대한 개념 해설을 통하여 글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구성 요소간의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대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유추의 기법을 통해서 대상의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

③
이 글은 이종 장기 이식에 따른 문제점을 전문가들이 견해를 인용하여 역설하고 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유추적 설명을 이용하고 있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를 동원하고 있으며 글의 첫머리를 통해서 자신이 전개할 논지의 방향을 미리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③이 답이다.